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2, 귀납적 방법론, 증거, 직접, 전체적, 순차적 등

© 2024 David Bauer 및 Ted Hildebrandt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2, 귀납적 방법론, 증거, 직접, 전체적, 순차적 등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여덟 번째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가 과정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일곱 번째 문제인 해석, 선행, 적용 결정에 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단계나 학습 단계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미묘함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해석에 적용되는 적용이 있고 해석이 적용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해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나선형 접근 방식의 문제입니다. 즉, 해석을 목표로 삼아 시작한다는 뜻이다. 즉, 이것이 여기서의 목표이지만, 우리 모두는 물론 특정한 삶의 관심사, 삶의 경험 등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해석 작업에서 적용 문제를 밀봉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작가가 원래 독자들에게 전달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관심사, 현대의 관심사를 부적절하게 해석에 포함시켜 작가가 시도한 내용에 대한 감각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청중과 소통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적용 문제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용이 필요하거나 적용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해석에 초점을 맞춘 다음 계속해서 목표로서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해 보면 이 시점에서 본문의 원래 의미에 대해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당신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해석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용 단계로 넘어가면 더 이상 해석, 즉 텍스트의 원래 의미를 확인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초점이나 목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점이나 목표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용 프로그램은 단순히 해석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복화술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본질적이거나 역사적인 의미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과 동일한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연구할 때 포함되는 것의 일부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우려와 질문의 종류가 본문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본문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이해해야 하는 의미의 다른 측면으로 가져오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지시합니다.

이제 제가 말했듯이 여기서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연구에는 과정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할 때, 결과의 품질, 해석이 얼마나 좋은지, 해석이 얼마나 유용한지,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적용 역시 결과의 품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의 품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프로세스의 품질이 해석과 적용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했듯이 프로세스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실제로 성경을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일종의 필수품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가 다른 곳에서 언급했거나 불렀던 기계적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가 기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고, 과정으로 축소될 수 있으므로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프로세스의. 즉, 성경 연구에는 물론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실제로 깊은 사람, 깊은 삶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대합니까? Brevard Childs 우리는 Brevard Childs의 첫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Brevard Childs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통역사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고 Childs의 대답은 더 깊고, 덜 얕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삶의 질은 실제로 의미, 본질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건 그렇고, 나는 여기서도 언급할 수 있는데, 나는 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한 방식으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물을 때 종종 이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즉 성경이 신학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더 나은 신학적 감각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시설과 신학적 사고와 신학적 추론이 심화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연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성경 책들이 신학 서적인 한, 당신이 더 나은 신학적 사고와 더 나은 신학적 이유를 가질수록,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 자체는 영적인 일은 성령과 성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 분별된다고 주장합니다.

영적인 생각은 성경에서 성령에 의해 전달되는 성령의 것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기독교인의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잠재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이 성경을 집어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북미 지역에서는 기드온 성경을 집어들지만, 또한 그들은 전 세계에 걸쳐 호텔 방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읽습니다. 기도도 없고, 어떤 종류의 기독교적 헌신도 없이,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개인적인 경험적 측면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가정은 성경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귀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문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귀납 또는 귀납의 의미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단어들은 일반 사람들은 물론 철학자, 논리학자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귀납적 또는 귀납적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납적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증거를 의미하며, 이는 연역적 접근 방식에 반대됩니다. 귀납적 접근 방식은 증거 접근 방식입니다. 연역적은 전제적이다.

따라서 귀납적 접근 방식은 해당 데이터의 증거에 대한 개방성을 갖고 데이터에 접근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증거를 살펴보고, 증거를 기반으로 데이터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은 귀납적 접근 방식입니다. 연역적 접근 방식은 특정 가정과 전제로 시작하여 데이터 자체가 아닌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도달하여 해당 전제를 데이터에 읽어들이는 방식입니다. 그 자체로 공정한 방식으로, 오히려 우리가 시작하는 전제인 전제에 기초하여 말입니다.

그것은 가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은 연역적 접근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가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신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자체의 본성, 성경 자체의 성격에 근거한 연역적 접근보다 귀납적 접근이 성경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 본문을 잠시 의인화한다면, 성경은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현실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말, 즉 반드시 우리의 전제나 가정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기자가 청중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당신이 하는 모든 것,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하세요. 거의 항상, 거의 항상 성경에서 본문의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뭔가 부족한데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실제로 사고와 실천에 도전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가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를 말하고, 우리의 전제에 도전하고, 우리가 가져오는 전제나 가정과 대조되고 종종 모순되는 자체 용어로 들어야 하는 새로운 단어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실제로 성경을 대적(adversarius) 이라고 불렀습니다. noster, 즉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는 성경이 우리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고 도전적인 말을 하기 위해 우리를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제에 도전하여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관점으로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글의 관점에 맞춰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연역적이기보다는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뿐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전제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절대 또는 순수 귀납법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도전과 의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접할 때,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길 바라나요? 그게 무슨 뜻이 아니길 바라나요? 그것은 전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제를 확인하고, 그런 전제를 성경 본문의 증거에 노출시키기 위해 전제를 확인하고, 그러한 전제가 이 본문에 의해 도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의 견해를 바꿀 준비를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의 증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중요한 것은 전제가 결론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20세기 초의 위대한 경건주의 신약학자인 아돌프 슈라터(Adolf Schlatter)는 우리가 우리의 전제를 인식할 때만 그것을 실제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스스로를 경전에 대한 귀납적 접근 방식의 신봉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전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성경 본문에 관해 전혀 편견이 없거나 편견이 없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전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실제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본문을 연구할 때 그러한 전제를 의도적으로 성경의 증거에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경우 마음을 바꾸려는 의도로 텍스트를 작성합니다. 이제 열 번째 가정은 직접적인 직접 연구로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해석으로 이동함으로써 귀납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연구에 대한 귀납적 접근 방식을 생각할 때 실제로 성경을 직접적으로 연구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귀납적 성경 연구의 정의, 즉 귀납적 성경 연구는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와 동의어이며, 읽기와 같이 다른 사람의 해석을 읽는다는 관점을 실제로 채택했습니다. 논평, 그 시점에서 당신은 연역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납적 대 연역적 이해에 관해 우리가 방금 말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은 그것이 귀납적 접근 방식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 가지로 사람은 직접 읽기에 참여할 수 있거나 다른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를 직접 연구하고 여전히 매우 가정적인 방식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직접 연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의 다양한 메시지에 근본적으로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전제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 구절에 대한 주석이나 다른 사람의 해석을 읽으러 갈 때, 그 지점에서 진정으로 귀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납을 떠나지 않거나 귀납을 떠나지 않도록 성경을 그 자체의 용어로 이해하려는 헌신을 기반으로 여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구절 해석을 읽는 것만으로는 연역적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직접적인 연구로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의 해석으로 이동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귀납이 촉진된다고 믿습니다. 즉, 2차 자료나 다른 사람들이 본문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읽는 것보다 본문을 직접적으로 직접 연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순서와 강조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 다른 해석자들이 그것에 대해 말한 것, 시작과 반대로 주석으로 가서 주석에서 답을 얻은 다음 계속 진행하고 아마도 그 시점에서 텍스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여기 애즈베리가 아닌 다른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에 관한 강좌를 수강했는데, 그 책의 한 단어도 읽지 않고도 그 강좌에서 A를 받고 또 A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자체. 전체 과정은 사도행전에 관해 특정 주석과 학자들이 말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사도행전 자체를 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당 강좌의 이름이 잘못 지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 자체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관한 문헌이나 학문적 견해로 명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나 대학에서 Dickens나 Chaucer, Milton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강좌를 수강한다면 강좌를 가르치거나 경험하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요 소스를 읽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밀턴에 관한

강좌를 수강했다면 주로 밀턴의 작품을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성경 연구나 성경 교육에는 성경 본문 자체보다는 성경에 관한 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 이유는 특히 신학교나 교회 환경에서는 성경의 메시지가 너무나 초월적이고 신성하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 즉 성경 공부가 다른 문화에서 유래하고 신성한, 신성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주장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그 일반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것을 신뢰할 수 없으며, 권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권위의 도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답을 주는 권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그들에게 주는 권위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수년간 귀납적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하워드 킬먼 키스트(Howard Tillman Kist)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시대에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교황, 성경 해석을 위한 교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가톨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의 의미는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위, 교회, 교회 권위가 그들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비록 개혁자들이 그런 종류의 것에 반발하고 성경이 교회 전체,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Kist가 개신교 신학의 재 가톨릭화 라고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답변을 얻기 위해 교황에게 가는 대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석에서 도출하기 위해 교수에게 가서 답변을 얻기 위해 주석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실 평론가들은 일종의 독립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석가나 학자가 갖는 유일한 권위는 기능적 권위입니다. 즉, 주석가나 학자가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스스로 도출하도록 도울 수 있는 한, 그 주석가는 기능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석가의 유일한 가치, 학자의 유일한 가치는 그 주석가나 학자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도록 돕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해설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반에서 해설을 꺼내고, 거기에서 답을 얻는 것,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까? 글쎄, 거기에는 실제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 어떤 학자가 그것에 대해 말한 것을 읽음으로써 어떤 구절이나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 구절에 대한 당신 자신의 이해에 눈가리개나 매개변수를 두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은 자신을 내려놓고 벗어나기 어려운 특정한 이해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해당 구절의 의미 중 원래 읽은 내용과 다른 측면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구절에 대한 모든 후속 작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주석가가 읽은 내용으로 인해 편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러한 과정이 직접 발견의 기쁨, 흥분, 의미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렘도 있어요.

형성 가능성, 잠재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진리를 접하거나 도출하는 데에는 아이디어를 얻거나 간접적으로 해석할 때 얻을 수 없는 의미와 이해의 수준이 있습니다. 귀하와 동일한 수준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진실, 그 이해, 그 해석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와 같은 수준의 기쁨과 흥분을 느끼지 않으며, 마치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 발견한 것처럼 형성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실제로 논평의 오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은 본문에 대한 여러분의 연구를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 의도는 당신이 본문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당신 자신의 본문 연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논평이나 2차 출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분 전에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이 책이나 이 구절에 관해 말한 것을 가서 읽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귀납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2차 자료, 예를 들어 주석의 사용은 본문에 대한 귀납적 접근의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과 보조 소스를 가장 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제가 언급한 이유들과 다른 이유로 인해 본문 자체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하여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최대한 수행한 다음 주석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 주석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본문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거나 나중에만 하는 것보다 그 시점에서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실제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귀납적으로 버립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나온 관념이나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계시 등의 승인을 받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고려를 위해 이러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유도적인 태도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답, 즉 정답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려를 위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버리는 문제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것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귀납적으로 그렇게하기를 바랍니다.

즉, 이유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알았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고려 때문에 바우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전혀 괜찮습니다. 내 생각에는 물론 내가 괜찮든 아니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내가 그것에 완전히 동참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비판적 성찰 없이 복음으로 제시하는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건전한 성경 공부의 주요 특징에 관한 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것을 작동 가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독립적인 권위를 가진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작동 가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그것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확신은 이 귀납적 사업이 귀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증거 검토에서 결론, 성경 본문 내외의 증거, 본문의 원래 의미와 본문의 현대적 적용 의미 모두에 관한 결론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세 가지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우리가 몇 분 전에 말한 것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성에 대한 강조, 증거에 대한 급진적인 개방성, 그리고 아무리 새롭거나, 예상하지 못했거나, 위험하거나, 무섭거나, 이상하거나, 낯설거나, 텍스트가 있더라도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Asbury에서 귀납적 성경 연구를 공부한 Dr. Trena는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급진적인 개방성, 즉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급진적인 개방성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즉, 증거에 대한, 증거에 대한 철저한 개방성,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든 증거로부터의 결론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최고의 권위가 될 것이며, 실제로 당신이 성경의 메시지,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든 성경의 증거,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에 근본적으로 열려 있다면 당신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인도되든 성경 본문 안과 그 주변의 증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당신의 신학을 바꾸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지위, 지위, 심지어 특정 신학 전통이나 교파 등에서 당신의 사역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성서가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력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교회 관리들의 지배적인 의견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둘째로 관찰에 대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접근 방식이 증거, 특히 성경 본문의 결론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증거 자체, 즉 성경 본문의 증거에 익숙해지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관찰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실제로 관찰함으로써 결론의 기초가 될 성경 본문의 증거를 만나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의 의미를 대상으로 고려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것을 관찰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전에는 거기에 있는 것의 의미를 실제로 진지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찰의 과정, 즉 텍스트를 관찰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추론 추론의 적절하고 창의적인 사용에 대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즉, 제가 말했듯이 증거에서 결론으로 이동하는 증거 접근 방식인 귀납적 접근 방식은 증거에서 결론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매우 관련이 있으며, 그 과정에는 추론적 추론이 포함됩니다.

자, 그것은 일종의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즉, 증거로부터 추론을 도출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증거는 이 본문의 의미가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증거는 이것이 이 구절이나 이 책의 의미임을 가리키며, 나는 이 증거로부터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증거에서 결론으로 이동하는 논리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꽤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나 우리 모두가 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구절에서든 의미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단지 성경일 뿐이지만 어떤 독서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당신이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구절을 읽을 때, 당신은 그 구절에 있는 내용을 암묵적으로 지적하고 그로부터 결론을 도출합니다. 글썄, 문제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추론적 추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그건 그렇고, 꽤 자주, 그리고 이것이 연역적 접근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성경에 있는 증거가 아니라 성경 외부에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을 결정하는 것은 성경 자체의 데이터가 아니라 성경 외적인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더 귀납적인 접근 방식이라기보다는 더 연역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항상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확신은 그것이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것, 즉 체계적으로 성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 자체의 용어로 말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강조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지하고 의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넷째, 전체적이고 순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귀납적 접근 방식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전체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괄적이다.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타당하고 관련된 모든 고려 사항은 귀납적 접근 방식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총체적입니다.

그런데, 귀납적 접근은 단순히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귀납적 방법, 인용문, 인용 해제 방법, 예를 들어 서술적 비평 방법이나 문학적 방법, 또는 또 다른 선택으로 사회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조금 나중에 편집 비판적 방법 또는 소스 비판적 방법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는 다른 방법들과 나란히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방법을 최적의 방법과 최적의 시기에 프로세스, 프로세스에 통합하려고 하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전체론적이지만 제가 말했듯이 순차적입니다.

그러나 물론 넓게 보면 그것은 총체적이고 순차적이며, 그것은 관심의 관점에서 해석과 적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절차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직접 학습하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학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본문에 나오는 개인의 만남과 본문에 나오는 공동체적 또는 단체적 연구, 단체적 만남 사이의 관계에 관해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방법은 성경 자체의 성격을 반영해야 하며, 성경 자체가 때로는 개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 율법에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명령 옆에 이스라엘 개인을 향한 모세의 계명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이 지시가 개인으로서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체에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심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간 전통, 즉 신약성서의 서신서에서는 전체 교회에 지시하는 내용이 여러 번 있지만, 또한 서신서에는 개별 기독교인 등에 대한 사역이나 교훈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의 끝 부분에 있는 골로새서에 주목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여,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RSV입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을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시 한 번, 개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 절차 측면에서 텍스트를 개인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즉 우리 각자가 텍스트 앞에 개인으로서 있고 텍스트가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스트와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 본문을 직접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때 그 점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용적이거나 물류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참여하는 공동체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동체나 그룹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거나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일할 때, 그들은 개인적으로 본문을 접한다는 관점에서 자신의 연구 공간에서 사적인 일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본문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역동성을 제공하는 그룹 없이 성경을 직접 읽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본문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의 한 측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텍스트에도 기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개인으로서 우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교회 전체, 즉 교회 전체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을 교회에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의 메시지나 의미에 관해 다른 사람들, 특히 신앙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통찰을 얻습니다. 단순히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누군가가 명시적으로 말한 것 이상의 구절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에 대한 더 큰 의미와 통찰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석의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귀납적 접근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그 의미에 관해 결론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앙 공동체와 학자 공동체, 독자 공동체가 구절의 의미에 관해 무엇을 생각해 냈는지 이해하기 위해 가야 할 가장 확실한 곳은 주석이나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해설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공동 연구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직접적인 공동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룹이 있지만 더 간접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 등의 사용은 그것이 일종의 특이한, 즉 특이하게 개인적인 해석에 대한 일종의 점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나는 원칙적으로 내가 특정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작업할 때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런 해석을 내놓은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나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나는 항상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는 것 중 하나는 제가 주석서나 특정 구절에 관해 학자들이 말한 것, 또는 그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찾아볼 때입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 해석이 남김없이 완전히 접힐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으로 축소될 수 있어서 내 해석에 독창성이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절에 대한 나의 해석과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없다면, 물론 나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해석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학습의 사업은 개인의 해석을 위한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즉, 구절이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절의 의미가 하나의 단일 의미보다 다소 클 수 있는지, 구절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해석의 개별 차이가 의미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맞을 수도 있는 구절.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구절이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거나 적어도 정확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구절은 때때로 다중적입니다.

즉, 구절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하나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1장을 펴보면, 그 구절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 구절을 문맥에서 살펴보면 모든 증거를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그 구절 자체는 다중적입니다. 그런데 다가(Multivalent)는 하나 이상의 의미 또는 여러 의미, 다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가(多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가, 둘 이상의 의미, 많은 의미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예수가 울다. 이 본문 안과 주변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우셨다는 것을 읽을 때 요한이 시사하는 바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위해 우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즉,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자신이 나사로를 소생시킬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사로의 소생은 부활과 다르다. 소생은 부활을 가리키지만 물론 부활은 아닙니다. 한번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지만 나사로는 소생하여 다시 죽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두 번 죽는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여기서 예수께서 우셨다고 기록했을 때, 아마도 그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위해 우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것은 울음이었고, 슬픔에 대한 탄식이었고, 새로 준비된 무덤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종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께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슬픔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소생될 예정이었지만 그의 첫 번째 죽음은 실제로 나사로의 죽음에 직면하여 그가 육체적으로 다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본문이 이것을 시사하는 한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슬픔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 앞에 서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울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죽은 자의 부활 교리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부활에 대한 신약성경의 개념은 물론 이 사람들의 육체적 부활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저편에서 그들과 같은 관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관계, 초월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이지만 동일한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별한 관계의 상실을 슬퍼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졌던 관계는 누군가의 육체적 죽음으로 인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1장 35절 주변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을 읽을 때 그분이 실제로 나사로를 위해 우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도하는 자들을 위해 우셨다는 동일한, 적어도 동일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는 자들을 위하여 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무덤 주위에서 애도하는 자들의 슬픔과 슬픔의 정도를 보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부활의 전체 개념. 즉,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소망이 없는 자들, 같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로서 어느 정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방식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슬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일종의 안정제나 대응제로서 포함하지 않는 일종의 슬픔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단지 다가적인 이해의 한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에 대해 설교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같은 구절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가지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모순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의미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모순되지 않지만 서로 다릅니다. 그것들은 다르며 다가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책에서 내가 실제로 논의한 원리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나는 내 책을 홍보하기 위해 여기서 이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 자료의 관점에서 우리는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제목은 Robert Traina 박사와 제가 공동 집필한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ractice of Hermeneutics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Baker Academic Press에서 출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우연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에서 언급했고 여기서는 결정성과 불확정성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은 일종의 기술적 표현이지만 개념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범위가 있거나 연속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절은 연속체의 한정된 끝에 있고 일부는 연속체의 불확정적인 끝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구절은 가능한 의미의 범위가 매우 좁은 구절입니다.

여기에도 범위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가능한 해석의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연속체의 불확실한 끝에 있는 구절은 훨씬 더 넓고 더 넓은 범위의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해석 또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구절에도 경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무엇이든 의미하는 구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는 구절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구절에 잠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불확정적인 구절에도 경계가 있고, 정해진 구절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모든 구절이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진술 뒤에는 적절한 원칙이 있고, 그것이 제가 방금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구절에서든 의미에 대한 경계. 그러므로 구절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구절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는 어떤 구절에서는 더 넓을 수도 있고 다른 구절에서는 더 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의미, 합법적인 의미, 합법적인 해석의 범위 때문에 개인의 배경, 개인의 경험, 다양한 신학적 전통 및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과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 나의 전통, 북미 문화의 나의 신학적 전통에서 나온 나는 한 구절에 대한 다양한 정당한 해석 중에서 특정한 의미나 특정한 해석 쪽으로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은 맞지만 그것만이 옳은 해석은 아니다. 이 다른 것들은 이에 모순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의 경험, 배경, 문화 및 당신이 가진 것의 매개 변수 때문에 보지 못하거나 적어도 보지 못하는 일종의 의미의 충만함을 더 많이 표현합니다. 명확하게 또는 즉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최적의 상황,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잠재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개별 해석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표현합니다. 즉, 서로 다른 개별 해석이 있고 각각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공동 해석의 중요성도 표현됩니다. 나는 신앙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 말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잠재적인 구절의 의미를 더 완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특히 문화 간 노출이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주석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주석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주석에서 무엇을 기대할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아버지들의 말을 살펴보면 됩니다. 교부들, 어거스틴, 제롬, 이레나이우스,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에 대해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신은 정말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북미에 있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구절에 대한 아프리카 해석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 등의 잠재적인 의미를 더 잘, 더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이든 개별적이든,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그리고 자원 측면에서는 합리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자카(zaka), 즉 나의 경험의 실체와 관련된 성경의 실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를 돕고, 성경 구절의 의미와 의미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이 이성적인 담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성, 이성적, 이성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혀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지성을 사용하는 것과 생각을 사용하는 것과 영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 깊은 싸기가 박혀 있다고 믿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적 능력이나 이성적 능력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성령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어쩌면 심지어 더 멀리까지 나아가서,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이 합리적으로 의도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한, 당신은 성령을 더욱 저항하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중립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구절이나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연구의 방법이 성경 자체의 성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성경은 이성적인 담론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사실, 종종, 자주,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성애 호소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사가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약성경 전체에는 이성애에 대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이성적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성적인 담론의 형태로 계시하셨고, 계시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이성적 능력을 활용하는 한, 우리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완전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할 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로 우리는 무엇이 정확한지 결정합니까? 아니면 정확한 해석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나요? 한 해석은 옳고 다른 해석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한 가지 해석이 다른 해석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가? 한 해석이 다른 해석보다 낫다고 평가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질문, 정말 핵심적인 질문에 들어갑니다. 즉,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질문에 답하고 대답해야만 해석이란 무엇인가? 특정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더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세션 2, 귀납적 방법론, 증거, 직접, 전체적, 순차적 등입니다.